神學展望 193(2016), 156-196

초기 조선 천주교회에서의 선비정신과 순교정신의 만남

이 대 근
(신부, 대전가톨릭대학교 동양철학 교수)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유교의 선비정신
1. 선비의 어원과 개념
2. 유교 경전의 선비정신
Ⅲ. 그리스도교의 순교정신
1. 순교의 의미
2. 그리스도교의 박해와 순교
Ⅳ. 선비정신과 순교정신의 만남
1. 조선조의 선비정신
2. 초기 조선 천주교회에서의 선비들의 역할
Ⅴ. 선비정신과 순교정신의 차이와 접목
1. 선비정신과 순교정신의 차별성
2. 순교정신의 기반으로서의 선비정신
Ⅵ. 나가는 말

국문 초록

'선비정신'은 우리 민족 고유의 관념에서 출발하여 조선조 오백년을 지배한 정신이다. 본고는 선비정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순교정신과 연계시켜 초기 조선 천주교회의 영성을 전통사상의 맥락 속에서 재정립해 보고자 한 것이다. 조선조 선비들의 청렴과 청빈, 검소와 절제, 그리고 의를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기꺼이 죽음을 택하는 정신은, 공맹

* 본고는 2016년도 광주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논문임.

의 가르침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그리고 순교는 신앙의 의미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바침으로써 주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행위이다. 초기 한국 천주교 신자들의 신앙은 바로 '순교정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천주교를 처음 받아들이고, 초기 교회를 이끌어간 사람들은 유교적 가치관 속에서 자란 선비들이었다. 그들은 선비정신을 토대로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였다.

유교의 선비정신과 그리스도교의 순교정신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지만(교의적·인격적, 자력적·타력적, 현세적·초자연적), 선비정신은 순교영성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고, 또 그 바탕이 되어주었음을 본고는 몇 가지 점에서 논하고 있다. 곧 양자가 함께 진리탐구의 정신을 공유한다는 점, 정학(正學)과 사학(邪學)에 대한 분명한 가치기준을 토대로 제시되었다는 점, 충(忠)·효(孝)라는 보유론적 관점에서 상호 접합되었다는 점, 선비들의 청렴·검약의 정신이 박해로 인한 빈곤과 역경을 견뎌내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점, 조선조 선비 집안의 정절 관념이 초기 조선 천주교회의 동정 관념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주제어: 유교, 선비, 순교, 조선 천주교회

Ⅰ. 들어가는 말

조선에서의 천주교 신앙은 유교와 천주교가 만나서 형성된 보유론(補儒論)적인 신앙에서 출발했다. 이에 대한 연구는 근래 체계적으로 시도되고 있지만,[1] 아직 유교와 천주교 양 사상의 정수인 선비정신과 순교정신을 비교하고 그 연계성을 살핀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선비정신'은 우리 민족 고유의 기상에서 출발하여 조선조 오백년을 지배한 정신이다. 선비정신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선비란 무엇인가. 시비(是非)정신과 비판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대쪽같은 기상과 칼날같은 법도로써 의(義)를 위해 죽을 줄 알고 불의에 굽힐 줄 모르는 사

1) 이대근, 『조선후기 천주교 수용 연구』, 대전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15 참조.

람, 추상같은 기개와 송죽(松竹)같은 지조로써 훼절(毁節)않으며 권력앞에 의연하고 금력앞에 초연한 사람, 주리면서도 당당하고 굶으면서도 추하지 않아 담대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선비라 할 수 있다. 선비는 지조를 생명으로 알고 시비정신을 철칙으로 알아 행동해야 선비인 것이다. 그러니까 살 줄 알고 죽을 줄 아는 사람, 이것을 선비라 함이다.[2]

그리고 초기 한국 천주교 신자들의 신앙은 바로 '순교정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엄혹한 박해 시기에, 신자들은 매일의 순교적 삶으로써 신앙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며 살았고 보여주고 전달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선비정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순교정신과 연계시켜 초기 조선 천주교회의 영성을 전통사상의 맥락 속에서 재정립해 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Ⅱ. 유교의 선비정신

1. 선비의 어원과 개념

'선비정신'을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비'가 무엇인지부터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선비라는 순수한 우리말이 어느 때부터 불리게 되었는지 그 정확한 시기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 세종 25년(1443)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 '사'(士)와 '유'(儒)의 글자풀이를 'ᄉᆞᆫᄇᆡ' 또는 '선븨'로 표기한 것을 보면 그 이전에도 우리 글이 없어서 선비라고 표기를 못했을 뿐이지 '선비'라는 우리말이 있었음이 분명하다.[3]

"선비는 유교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선비는 유교를 국시로 삼은 조선시대에 갑자기 형성된 것은 아니었다."[4] 신

2) 류성렬, "21세기에 있어 선비정신의 재조명", 『전남도립대학교 논문집』 2집, 2000, 3.
3) 이장희, "朝鮮時代 선비像", 『고문화』 53, 한국대한박물관협회, 1999, 41-42 참조.
4) 같은 책, 42.

채호(申采浩)는 『조선상고사』(朝鮮上古史)에서 선비는 곧 선인(仙人 혹은 先人)으로 선(仙·先)은 음을, 인(人)은 뜻을 빌어 이두(吏讀)로 표기한 것이라 하고 『삼국사기』(三國史記)를 인용하여 왕검이 곧 선비라고 하였다. 또한 고구려에 선비제도가 있었으며, 선비는 나라에서 봉급을 받고 학문과 무예를 닦아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신라 진흥왕 때의 국선(國仙) 화랑제도 역시 고구려의 선비제도를 모방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불교나 유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에게는 '수두교'(蘇塗敎)라는 고유한 민족종교가 있었고, 그 교도들을 '선비'라고 불렀다는 것이다.[5]

유재신도 신라의 화랑은 선비였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선비정신이 '문'(文)을 숭상하는 중국이나 '사무라이(武) 정신'을 강조하는 일본과 달리 문무를 겸비한 신라의 화랑정신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였다.[6] 한편 최근덕은 선비라는 말은 선배(先輩)를 의미하는 'ᄉᆞᆫᄇᆡ'에서 온 말로 '선븨'를 거쳐 선비로 진화되었다고 보았다.[7] 이 밖에 선비란 말이 우리 민족의 연원과도 관련이 있는 고대 북방민족인 '선비'(鮮卑)에서 왔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8]

선비라는 우리말이 문헌 속에 최초로 나타난 곳은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이다. 전체 125장 중 제 80장과 82장에 각각 두 번씩 선비가 나오는데,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선비는 좁은 의미에서 '유학을 공부하는 유생(儒生)들'을 일컫는 말로 쓰이고 있다.[9] 최세진(崔世珍)의 『훈몽자회』(訓蒙字會)나 정윤용(鄭允容)의 『자류주석』(字類註釋) 등에도 유(儒)나 사(士)란 한자의 훈으로 '선븨'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10]

---

5) 참조: 신채호, 『朝鮮上古史』, 이만열 역주,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 1990, 109-225; 오석원, "안동 선비문화의 형성배경과 현대적 의의", 『안동의 선비문화』, 아세아문화사, 1997, 19-20.

6) 유재신, "인간의 이상은 君子가 되는 것", 『목회와 신학』 100, 두란노출판사, 1997, 196 참조.

7) 최근덕, 『韓國儒學思想硏究』, 철학과현실사, 1992, 19-21 참조.

8) 김양동, 『한국 고대문화 원형의 상징과 해석』, 지식산업사, 2015, 434-443 참조.

9) 정인지, 『龍飛御天歌』, 이윤석 역, 솔, 2002, 304, 309, 421 참조.

이렇게 ‘선비’라는 말의 어원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선비정신이 곧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신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국의 선비사상이 우리의 고유한 것이라 할지라도 유교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상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 의미가 풍부해진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다른 어느 때보다 큰 영향을 끼친 것이 조선시대 오백 년 동안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말의 ‘선비’는 ‘선비 유’(儒)와 ‘선비 사’(士)로 통칭되므로 유교적인 용어로 이해되고 있다. 그 이유는 숭유정책으로 일관된 조선 시대의 유교가 선비 정신에 깊이 배어들면서 유(儒)와 사(士)가 함께 사용되었기 때문이다.[11]

우리말의 선비의 개념은 유가적 용어로는 유(儒)와 사(士)로 표기되고 있다. ‘유’(儒)는 고대 중국에서 “보통 세속과 사회에서 필수적인 예(禮)를 잘 알고, 이를 관장하는 무리로 공자학파의 모체가 되는 전문지식인 계층”[12]을 가리켰다. 이것이 유가라는 학파가 형성되면서, 『훈몽자회』에서 풀이한 것처럼 ‘유교의 도를 지키며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 의미가 발전되었다.

우리말 ‘선비’는 ‘유’(儒)의 개념보다 ‘사’(士)와 더 친밀하다. “사(士)의 성격은 고대 중국에서는 관직의 명칭이자 신분계급의 하나이기도 하였는데, 춘추전국시대에 공자·맹자를 중심으로 유교사상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관직과 분리된 ‘인격’의 측면이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 신분 계급적 의미를 넘어선 ‘유교적 인격체’로서의 위상이 정립”[13]된 것이다.

조선에서도 처음 ‘선비’라는 말은 ‘사대부’(士大夫) 혹은 ‘사서

10) 『훈몽자회』는 중종 때 최세진이 쓴 한자 학습서로, 한자 3,360자에 뜻과 음을 훈민정음으로 단 것이다. 『자류주석』은 철종 때 정윤용이 『훈몽자회』를 본떠 한자에 한글로 음을 달고 풀이한 책이다. 이성무, “선비와 선비사상”, 『南冥學』 17卷, 남명학연구원, 2012, 9-10 참조.

11) 손윤탁, 『선비精神이 初期 韓國 基督敎에 미친 影響』,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2012, 10-11 참조.

12) 최재목, 『退溪先生』 七卷, 國際退溪學會 대구경북지부, 2004, 16.

13) 정옥자 외, 『시대가 선비를 부른다』, 효형출판, 1998, 12.

인'(士庶人) 등의 용어와 결합되면서 특정 계층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으나, 이후 '사군자'(士君子)란 용어로 지칭되듯이 점차 지위·벼슬·신분에 관계된 말이 아니라 오히려 교양이나 인품을 갖춘 사람을 이야기하는 개념으로 변화되어 갔다.[14]

이와 같이 조선시대의 선비란 유가사상의 정통 가운데 사회를 주도해 온 지식인 문화 집단에 대한 총칭이다. 곧 유가적인 이상적 지식인으로 경전에 대한 일정한 지식과 예술에 대한 조예를 갖춘 사람으로 조선조 사대부 문화 곧 선비문화를 창출해 내고 실천한 지식인이며, 학문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 하겠다.[15] 정옥자는 이러한 조선시대의 선비를 명분과 의리로 국민을 설득하고, 덕치로써 국민을 포용하려는 조선왕조가 인간화 과정에서 설정한 이상적 인간으로 보았다.[16]

2. 유교 경전의 선비정신

유가에서 말하는 선비정신의 본질은 '도(道)를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다. 유가에서의 도는 바로 공맹(孔孟)이 가르친 도로, 선비는 공맹의 도를 지키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겼으며, 그것을 실현하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삼았다. 그러므로 유교의 선비정신이 무엇인지 알려면 『논어』(論語)와 『맹자』(孟子)가 말하는 선비(士)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아야 한다.

1) 『논어』

공자는 자기 사상과 신념의 근거를 천(天)에 두었다. 공자에게 있어서 천은 그에게 생명과 소명을 부여하고 이끌어가는 의지적 실재였다.[17] 이 천의 마음이 인간 안에 부여된 것, 인간이 행해야

14) 손윤탁, 앞의 책, 18-20 참조.
15) 권문봉, "전통적 선비정신에 대한 일고찰", 『한문교육연구』 23, 2004, 191 참조.
16) 정옥자,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선비』, 현암사, 2003, 12-14 참조.
17) 『論語』에 나타나는 공자(孔子)의 언급들은 대부분 인격적·주재적·의지적 천견(天

할 최고의 가치가 인(仁)이다. “뜻있는 선비와 어진 사람은 살기 위하여 인(仁)을 해치지 않고, 목숨을 버려서라도 인(仁)을 이룬다.”[18] “선비란 위태로움을 당하여서는 목숨을 바치고, 득(得)을 보면 의(義)를 먼저 생각한다.”[19] 공자에게 있어서 선비는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이다.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길(仁義)을 실현하기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을 선비의 자세로 제시하고 있다.

공자는 “선비는 의(義)를 행위의 근본으로 삼는다”[20]고 하였고, “삼군(三軍)에게서 장수를 빼앗을 수는 있으나, 한낱 선비의 뜻(志)은 그 어떤 힘으로도 빼앗지 못한다”[21]고 하였다. 의(義)는 옳고 떳떳한 도리를 말한다. 아무리 위협해도 선비의 지조를 꺾지 못한다. 생명의 존망을 건 절체절명의 순간 선비는 차라리 생명을 기꺼이 버릴지언정 뜻을 굽히지 않는다는 선비의 지조를 말하고 있다.

증자(曾子) 역시 “선비는 마음이 넓고 뜻이 굳세어야 할 것이니, 그 임무는 무겁고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인(仁)으로서 자기 임무를 삼았으니 어찌 무겁지 않으랴. 죽은 뒤에야 그칠 것이니 또한 멀지 않으랴”[22]라고 함으로써 변하지 않는 의지 곧 지조를 강조하였다. 또 “군자는 의(義)에 밝고 소인은 이(利)에 밝다”[23]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비가 도에 뜻을 두고 있으면서도 헌 옷을 입고, 거친 음식 먹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이런 사람과는 더불어 대화할 가치가 없다.”[24]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우니, 그 속에도 즐거움이 있다. 불의로 부귀하게 사는 일이 내겐 뜬

觀)의 표현이다: “不怨天 不怨人 下學而上達 知我者 其天乎”(憲問), “不然 獲罪於天 無所禱也”(八佾), “予所否者 天厭之 天厭之”(雍也), “天生德於予 桓魋其如予何”(述而), “吾誰欺 欺天乎”(子罕) 등.

18) 『論語』, 「衛靈公」, “志士 仁人 無求生以害仁 有殺身以成仁.”

19) 『論語』, 「子張」, “士 見危致命 見得思義.”

20) 『論語』, 「衛靈公」, “君子義以爲質.”

21) 『論語』, 「子罕」, “三軍可奪帥也 匹夫不可奪志也.”

22) 『論語』, 「泰伯」, “士不可以不弘毅 任重而道遠 仁以爲己任 不亦重乎 死而後已 不亦遠乎.”

23) 『論語』, 「里仁」, “君子喩於義 小人喩於利.”

24) 『論語』, 「里仁」, “士志於道而恥惡衣惡食者 未足與議也.”

구름과 같다."[25] 세속의 명리(名利)를 쫓는 시류(時流)에 영합하지 않고 정도(正道)를 추구하는 이러한 정신은 청렴과 청빈, 검약과 절제, 안빈낙도(安貧樂道)를 미덕으로 삼는 선비정신을 대변한다.

2) 『맹자』

맹자 역시 선비는 마땅히 인(仁)과 의(義)에 뜻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26] 그는 '인'은 사람의 마음이지만, '의'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이라고 하여[27] 인의(仁義)를 늘 병칭하였다. 공자와 마찬가지로 그도 "일정한 생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은 선비만이 할 수 있다"[28]고 이야기함으로 선비의 인격은 물질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마음임을 분명히 하였다.

맹자는 사람의 몸을 '작은 몸'과 '큰 몸'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육체의 몸으로 본능적 측면을 가리키고, 후자는 정신적인 몸으로 도덕적 측면을 가리킨다.[29] 두 개의 몸에도 각각의 기호가 있는데, 작은 몸이 좋아하는 것은 육체적 감각의 충족과 사지의 편안함 같은 것이고, 큰 몸이 추구하는 것은 도덕적 덕목들과 인륜관계의 규범들로 하늘이 부여한 것(天命)이다.[30]

큰 몸의 기호를 따르는 데는, 때로 큰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 일반인들은 '작은 몸'을 기르는 것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큰 몸'의 지향성을 따를 수 없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큰 몸'의 지향성을 따라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선비 곧 '큰 몸'의 귀함을 아는 사람들이다.

---

25) 『論語』, 「述而」, "飯疏食飮水 曲肱而枕之 樂亦在其中矣 不義而富且貴 於我如浮雲."
26) 『孟子』, 「盡心 上」, "尙志 曰何謂尙志 曰仁義而已矣."
27) 『孟子』, 「告子 上」, "孟子曰 仁人心也 義人路也."
28) 『孟子』, 「梁惠王 上」, "曰 無恒産而有恒心者 惟士爲能."
29) 『孟子』, 「告子 上」, "孟子曰 從其大體爲大人 從其小體爲小人 鈞同也 從隨也 大體心也 小體耳目之類也."
30) 『孟子』, 「告子 上」, "故曰口之於味也 有同耆焉 耳之於聲也 有同聽焉 目之於色也 有同美焉 至於心 獨無所同然乎 心之所同然者何也 謂理也 義也 聖人先得我心之所同然耳 故理義之悅我心 猶芻豢之悅我口."

> 물고기는 내가 바라는 것이다. 곰 발바닥 또한 내가 바라는 것이다. 그런데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없을 때는 물고기를 버리고 곰 발바닥을 택한다. 삶은 내가 바라는 것이다. 의(義)도 내가 바라는 것이다. 그런데 두 가지를 아울러 얻을 수 없을 때는 생명을 버리고 의(義)를 취하는 것이다. 사는 것도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 바라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이 있기에 구차스럽게 생명을 보존하려 하지 않는다. 죽음도 내가 싫어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싫어하는 것이 죽음보다 더한 것이 있기에 재앙을 피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살게 되어도 그 방법을 쓰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어도 그 방법을 쓰지 않기도 한다. 따라서 바라는 것이 삶보다 더한 것이 있는 것이며, 싫어하는 것이 죽음보다 더한 것이 있다는 것이다. 오직 현자만이 이런 마음을 지닌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데 현자는 이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을 따름이다.[31]

맹자는 참으로 육체적 생명보다 더 고귀한 것이 있음을 힘써 말하고 있다. 공자의 살신성인(殺身成仁), 맹자의 사생취의(捨生取義)와 같은 선비정신은 그리스도교의 종교적 신념과 결합될 때 진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순교정신으로 전환될 수 있는 요소를 그 안에 지니고 있다.

Ⅲ. 그리스도교의 순교정신

1. 순교의 의미

‘순교’와 ‘순교자’라고 우리말로 옮겨진 그리스어 단어들 ‘마르투리온’(μαρτύριον)과 ‘마르투스’(μάρτυς)는 본래 단순한 ‘증언’과 ‘증

31) 『孟子』, 「告子 上」, “孟子曰 魚我所欲也 熊掌亦我所欲也 二者 不可得兼 舍魚而取熊掌者也 生亦我所欲也 義亦我所欲也 二者 不可得兼 舍生而取義者也 生亦我所欲 所欲 有甚於生者 故不爲苟得也 死亦我所惡 所惡 有甚於死者 故患有所不辟也 …如使人之所欲 莫甚於生 則凡可以得生者 何不用也 使人之所惡 莫甚於死者 則凡可以辟患者 何不爲也 …是故 所欲 有甚於生者 所惡 有甚於死者 非獨賢者有是心也 人皆有之 賢者 能勿喪耳.”

언자'를 뜻한다. 이 단어들이 그리스도교의 용어로 채택되면서 그 의미가 본질적으로 변하게 되었다.[32] 라틴어로 순교는 '마르티리움'(martyrium)으로 '피흘림으로 순교자가 됨'을 의미한다. 곧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죽임을 당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자신이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를 위해 가장 소중한 생명을 바치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진실성과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진실성을 죽음으로써 증명하는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영웅적인 행위이며 그리스도인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완성된 단계이다. 한국 천주교회가 박해를 받던 시기에는 순교라는 말보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의미의 '위주치명'(爲主致命), '치명'(致命)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였다.[33]

교회는 순교자의 죽음이 그리스도교의 순교가 되기 위한 본질적인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34]

① 순교는 육체적 생명이 끊어지고 참으로 죽어야 한다.
② 그 죽음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진리에 대한 박해에 기인한 것이어야 한다.
③ 순교는 주어진 죽음을 자유로이 받아들여야 한다.

순교는 죽음을 마주 대하고 신앙의 의미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바침으로써 육신을 죽이는 자를 초월하는 주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행위이다. 그래서 순교의 목적은 매우 인격적인 것이다. 순교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의 위격 자체 때문에 죽는다.[35]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티우스 주교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은 열렬한 순교의 원의를 피력하고 있다.

32) 박재만, "순교 영성의 재발견을 위한 시도", 『司牧』 155, 1991, 6 참조.
33) 이동호, "순교", 『한국가톨릭대사전』 8, 한국교회사연구소, 2001, 5156 참조.
34) 이성배, "순교의 신학적 의의", 『展望』 11, 1970, 102 참조.
35) 박재만, "교부 시대의 순교 영성(1)", 『경향잡지』 4, 1987, 108-109 참조.

> 이제와서 나는 제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것이거나 보이지 않는 것이거나 아무것도 내가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질투해서 방해하지 말 것입니다. 불도 좋고 십자가도 좋고 맹수의 무리도 좋으며…가장 잔인한 형벌도 좋습니다. 다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36]

모든 순교자들이 이러한 하느님께 대한 관계에서 나오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던 것이다. "그래서 순교로써 드러나는 증거는 어떤 이념이 아니고 생명의 하느님께 대한 '나와 너'의 인격적인 만남에 의한 것이다(사도 7,54-60 참조)."[37]

마르투리온이란 용어는 교회 안에서 증거하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기 위해 피 흘리면서 목숨을 바치는 행위를 지칭하였다. 곧 본 의미의 순교이다. 실제로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대로, 그분 때문에 법정에 끌려가고 재판관들 앞에서 매맞고 심문을 당하면서 그분을 증거하였으며, 결국 피 흘리면서까지 그 진리를 밝혔다.

그런데 교회 역사 안에서 박해가 종식되면서 순교의 의미는 새롭게 해석되기도 하였다. 곧 순교의 개념이 '피 흘림의 순교'를 넘어 영적순교라는 뜻으로 기도와 고행에 전념하던 은수생활과 수도생활에까지 확대되어 적용되었다. 순교의 폭넓은 이해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일상 생활에까지 적용되었다. 매일 앞에 놓이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 순교의 시작이며 핵심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복음적 삶에는 매일 매 순간마다 순교적 결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38]

---

36)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 주교 순교자, "로마인들에게: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서간", 서공석 역, 『神學展望』 24, 1974, 107-108.

37) 김희남, 『殉教의 神學的 考察』, 석사학위논문, 大建神學大學 大學院, 1980, 69.

38) 적색순교(피의 순교)와 백색순교(영적순교)에 대해서는 최승기, "순교 영성의 현대적 의미", 『신학과 실천』 42, 2014, 535-544 참조.

2. 그리스도교의 박해와 순교

그리스도교는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제국에서 300여년에 걸친 기간 동안 가혹한 박해를 받았고, 이후에도 페르시아, 터키, 중국, 일본, 베트남, 한국에서 모진 박해를 겪었다. 순교자 테르툴리아누스(Tertullianus)가 "순교자의 피는 그리스도인의 씨앗"[39]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교의 역사는 박해와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지고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

1) 로마제국의 그리스도교 박해

그리스도교는 복음 전파 초기부터 로마제국 내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전파되었다. 그러나 결국 로마제국과의 마찰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박해로 이어졌다. 폭군 네로(Nero, 재임 54-68) 황제 시대로부터 밀라노 관용령으로 신앙이 공인된 313년까지 3세기 가량 이어진 10여 차례의 대대적인 박해를 통하여 무수한 순교자들이 발생하였다.

로마제국이 그리스도교에 박해를 가한 원인은 그들의 종교인 다신교(多神敎)와 일신교(一神敎)인 그리스도교가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극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로마라는 국가는 종교적 원리에 근거하고 있었고 또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의식에 대해서도 관용적이었지만, 이들 종교에는 황제에게 마땅한 경의를 표해야 하고 국가의 제신(諸神)들을 인정하고 경배할 것을 당연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유일한 '주' 하느님으로 숭배하던 그리스도교의 절대성은 그리스도인에게 황제숭배를 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이교적인 국가 종교의식에 참가를 거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신론자'(多神의 부정이지 唯一神의 부정은 아님)로, 동시에 국가의적으로 보이게 하였고 보편 제국의 기초를 흔드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

39) 테르툴리아누스, 『호교론』(*Apologeticum*) 50, 13.

또한 그리스도교의 신앙생활에 대한 무지와 오해 역시 충돌의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로마는 국가 종교의 제국이었고, 로마인에게 있어서 국가는 삶의 목적이며, 개인도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절대적인 것이었다. 반면에 그리스도교는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지 않고, 유일신인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한 구원이 인간의 삶의 원인이며 목적이라고 하였다. 로마인들은 대중과 다르고 또 따로 떨어져서 다른 생활을 하며 종교적·윤리적으로 수준이 더 높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반감을 가졌다.

박해를 피해 이루어진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집회는 더욱 큰 오해와 중상을 일으켰는데, 신자들이 거기서 나누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인육의 제사라 생각하였고, 또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서로 통하는 '형제 자매'로서의 일상생활로 인해 근친상간적인 음란행위를 한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또한 자연재해나 공적인 재난, 불행한 사건과 군사적 패배를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의 신들에게 제물 봉헌을 거부한 탓으로 돌렸다.[40)]

이러한 요인들은 박해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하였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백한다는 사실만으로 증오와 박해를 받고 무서운 고문과 사형에 처해졌다. 박해가 절정에 달하였던 디오클레시아누스 황제(Diocletianus, 재임 284-305) 때는 사형으로 생명을 잃은 그리스도교 신자가 8만명이나 되었다고 한다.[41)]

300여 년에 걸친 모진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는 마침내 로마제국의 새로운 사회·통치질서로 자리잡게 되는 승리를 거둔다. 박해를 이겨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그리스도교의 보편적인 교리에서 찾을 수 있다. 교회가 제시하는 인생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답과 절대적 가치는 혼란기에 허구와 회의에 빠진 이들에게 그야말로 구원의 빛이었다. 무엇보다 신자들의 거룩한 생활과

40) A. 프란츤, 『세계 교회사』, 최석우 역, 분도출판사, 2001, 65-67 참조.
41) 참조: 한국사목연구소, 『세계사』, 사목연구총서 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11-16; 한국가톨릭대사전편찬위원회 편, "박해", 『한국가톨릭대사전』, 한국교회사연구소, 1992, 446-447.

교회의 자선활동, 형제적 친교, 나아가 순교자들이 보여준 용기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독실한 신앙과 불굴의 자세는 가해자들마저 감동을 받기에 충분했고 박해를 이기는 원동력이 됐다.[42)]

2) 조선조의 천주교 박해

조선에서의 박해의 상황과 원인 역시 그리스도교 초기에 겪었던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조선에서의 박해는 교회 창설 이듬해인 1785년부터 시작되었다. 중인 김범우가 첫 순교를 한 이후 조선 천주교회는 사대박해로 불리는 1801년의 신유박해, 1839년의 기해박해, 1846년의 병오박해, 1866년의 병인박해를 비롯하여 비교적 규모가 작았던 박해로 신해(1791), 을묘(1795), 을해(1815), 정해(1827), 경신(1860)박해와 1901년 제주에서 민란으로 인해 피를 흘린 제주교난 등 잇단 수난을 겪었다.[43)]

박해의 원인과 배경으로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외교적 상황이 작용하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천주교 교리와 유교적 이념과의 사상적 대립이었다. 당시 조선은 공맹유학의 가르침에 토대를 두고 주자학 외의 모든 종교와 사상을 이단으로 간주하는 강한 벽이단(闢異端)의 전통이 지배하고 있었다. 따라서 천주교 교리 또한 서양의 사학(邪學)으로 인식되어 배척될 수밖에 없었다.[44)]

천주를 만유 위에 받들고, 그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천주교는 과연 당시 국교적 성격을 띤 유교사회의 윤리와는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것이었다. 충효를 절대적인 가치로 숭상하는 봉건윤리 하에서, 천주교는 혹세무민의 종교로 여겨졌다. 특히 천주교 교리 중에서도 만민평등의 이론은 주자학의 분(分) 사상에 입각한 계급주의를 부정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사회 질서의 근본이 되는

42) "로마제국의 박해", http://blog.daum.net/stbdt/19(검색일: 2016.3.3) 참조.
43) 유홍렬, 『한국천주교회사』 上, 下, 가톨릭출판사, 2000 참조.
44) 한국사목연구소, 『국사』, 사목연구총서 2,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91-92, 123-124 참조.

사민(四民)의 구분이나 가부장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또 당시의 지식인들이나 위정자들은 우선 천주교의 신앙 공동체를 통화(通貨)·통색(通色)의 무리로 오해하였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유민(流民) 집단으로 간주하였다.[45]

특히 1790년 이래 조선 교회가 조상제사 금지령을 받아들이게 되면서는 천주교 자체가 충효의 근본 윤리를 비롯하여 기존의 윤리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천주교 교리는 "군신·부자·부부의 올바른 관계를 밝히는 인륜(人倫)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멸륜난상(滅倫亂常)의 사도(邪道)요, 제사를 폐지하고 예속(禮俗)을 어지럽히는 사설(邪說)이요, 살기를 싫어하고 죽기를 좋아하여 죽음을 영광으로 알기 때문에 형정(刑政)으로 이끌어 갈 수 없는 흉도(凶徒)"[46]로서 규정되었다.

조선 천주교회는 1886년 한불조약으로 신앙의 자유를 얻기까지 약 1세기간에 걸친 혹독한 박해를 겪으면서 12,000-13,000명에 이르는 순교자를 탄생시켰다. 박해가 지속되면서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 심산유곡으로 숨어들어 교우촌을 형성하거나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복음은 단절되지 않고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박해는 복음의 씨앗을 더 널리 퍼트리는 원동력'이 되었다.[47]

이렇게 조선의 천주교회는 순교로 시작했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흘린 피로 자라났다. "한국교회와 순교는 서로 뗄 수 없을 만큼 밀접히 결합되어 있으며, 초기 한국천주교 신자들의 신앙은 바로 순교였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48]

---

45) 같은 책, 84-89 참조.
46) 금장태, 『韓國儒教의 再照明』, 전망사, 1982, 269.
47) 참조: 한국가톨릭대사전편찬위원회 편, "박해", 『한국가톨릭대사전』, 447; 차기진, "박해", 『한국가톨릭대사전』 5, 3155-3159.
48) 김보록, "神學的 瞑想(XVIII): 殉教의 靈性", 『神學展望』 91, 1990, 137.

Ⅳ. 선비정신과 순교정신의 만남

1. 조선조의 선비정신

요컨대 선비들이란 대체로 조선조 시대에 형성된 지식인 집단이다. 그런데 그들은 단순한 지식인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지성을 갖추고 도덕적으로 인격을 갖춘 지식인들로서 조선조라는 정치공동체를 이끌어간 역사의 주역들이었다. 곧 백성을 다스리는 치자(治者)였으며 백성을 교화하는 교육자였다. 그러므로 군주로부터 천인(賤人)에 이르기까지 선비들이 주도하는 문화와 그 속에서 형성된 사회적 규범에 따라서 생활하였다. 선비들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하여 문물과 제도를 확립하였고,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문과 교육을 발전시켰다. 그리하여 '이기심성'(理氣心性)의 철학과 사상으로부터 '예악형정'(禮樂刑政)의 제도에 이르는 조선시대의 선비문화가 이룩되었다. 이와 같은 조선시대의 선비문화를 이룩한 문화창조의 추진력이 바로 선비정신이라고 하겠다.

유교적 정치 사상으로써 조선 사회를 이끌어 간 사대부는 고려 공민왕 이후부터 등장한다. 고려말 성균관이 중수되고 과거제도가 정비되면서 성균관을 중심으로 젊은 선비들이 주자학을 받아들이고, 고려 시대의 중심 이념인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 이념을 옹호하는 운동을 일으켰다.[49] 이들의 학풍은 조선왕조의 건국에 이념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었고, 조선왕조를 통하여 도학(道學, 朱子學)이 정통 이념으로 정립되면서 도학의 의리론(義理論)은 선비정신의 중추를 이루게 되었다.[50]

선비의 절대적 충의, 지조 정신은 특히 고려말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는 몰락하는 고려왕조를 지키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다가 순도(殉道)했는데, '그의 충의대절(忠義大

49) 권문봉, 앞의 책, 192-193 참조.
50) 금장태, 『유교사상과 한국사회』,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7, 98 참조.

節)은 일월(日月)과 같이 수백년을 두고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고 행위의 길잡이가 되었다. 유교가 추구하는 가치가 인간이 가장 고귀하다고 하는 생명보다 더한 것임을 실지로 보여준 첫 사례가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51]

같은 시기 야은(冶隱) 길재(吉再)는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제자로서 노모 봉양을 이유로 끝내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지조를 지킴으로써 고려조에 대한 애국심을 보였고, 또한 노모에 대한 지극한 효심을 실천하였다. 그러므로 조선조 선비들은 고려말 삼은(三隱: 포은·목은·야은)을 숭상하였으며 그 정신을 발휘함이 유림(儒林) 곧 선비의 절의(節義)정신으로 발전하였다.[52]

삼은과는 다른 길을 택했던 조선조의 개국공신 정도전(鄭道傳)은 선비정신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아! 죽고 사는 것은 진실로 큰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죽음 알기를 돌아가는 것처럼 여기는 자가 있는데 이는 의리와 이름을 위해서이다. 저 자중하는 선비들은 그 의리가 죽음만한 것을 당하면, 아무리 끓는 가마솥이 앞에 있고, 칼과 톱이 뒤에 설치되었으며, 화살과 돌이 위에서 쏟아지고, 예리한 칼날이 아래에 서리고 있을지라도, 거기에 부딪치기를 사양하지 아니하고 피하려 하지 않는 것은 어찌 의를 중히 여기고 죽음을 가볍게 여김이 아니겠는가. 과연 글 잘하는 사람이 이것을 서술하여 서책에 나타낸다면 그 영웅스런 정성과 의열(義烈)이 사람들의 이목에 밝게 비치고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킬 것이니, 그 사람은 비록 죽었으나 죽지 않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을 달게 여기고 후회하지 않는다.[53]

선비들이 의(義)를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겼으며 죽음을 택하는

51) 金忠烈, 『高麗儒學史』, 學術研究叢書 20, 高麗大學校出版部, 1984, 200-201 참조.
52) 참조: 정옥자 외, 앞의 책, 13; 권문봉, 앞의 책, 193.
53) 鄭道傳, 『三峰集』 4卷, "嗟呼死生固大矣 然人往往有視死如歸者 爲義與名也 彼自重之士 當其義之可以死也 雖湯鑊在前 刀鋸在後 矢石注於上 白刃交於下 觸之而不辭 踏之而不避 豈非義爲重 死爲輕歟 果有能言之士 述之於後 著在簡編 其英聲義烈 照耀人耳目 聳動人心志 其人雖死 有不死者在焉 故好名之士 甘心一死 而不以爲悔."

것은 후대에 그러한 사실이 알려져서 그 이름이 빛날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비굴하게 사는 것보다 영광된 죽음을 바라며, 선비들은 그 길을 택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54]

조선 초 세조가 왕위를 찬탈했을 때, 이의 부당함에 저항한 사육신(死六臣)·생육신(生六臣)과, 임진년의 사충신(四忠臣)이었던 조헌·고경명·김천일·곽재우를 비롯하여 병자호란 이후의 삼학사(三學士)인 홍익한·윤집·오달제 등은 선비의 충의와 지조정신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한때 성종 이후 정몽주·길재·김숙자·김종직·김굉필·조광조로 이어지는 사림파(士林派) 선비들이 정계에 진출하게 되었다.[55] 그 중 조광조(趙光祖)는 중종 때 34세로 벼슬에 나와 집권세력의 탐욕과 불의를 비판하고 정의로운 사회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다 38세에 사약을 받고 죽음을 당하였다. 그의 죽음은 죄없는 선비의 죽음이요, 유교적 신념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순교라 할 수 있다. 살아서는 죄인의 이름으로 죽음을 당했지만, 그가 추구하던 의리정신의 정대함은 후세에 선비의 모범이요 상징으로서 큰 가르침을 남겼다.[56]

조광조 이후 여러 사화(士禍)를 겪으면서도 사림파 선비들이 점차 조선조 유학계를 주도하게 되는데, 그들은 끝없는 학문 연구와 수련으로 자질을 갖춘 선비로서 관직에 나아가 유교적 이상을 실현하거나, 산림에 은거하여 후학을 양성하였다. 이황·조식·이이 등의 무수한 거유(巨儒)들이 배출되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주로 청환직(淸宦職)에 종사하였는데, 이는 학문을 전문으로 하거나 언로(言路)를 맡아 임금에게 간언을 하는

54) 이장희, 『조선시대 선비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86, 94 참조.
55) 여말 선초에 선비들의 태도는 고려왕조의 수호와 새로운 왕조 건설에 대해 두 입장으로 나뉜다. 결국 후자에 의해 조선왕조 설립의 기틀이 다져졌다. 그러나 세종조 이후에는 지조와 절개의 측면에서 정몽주나 길재를 잇는 도통(道統)이 선비정신의 모범으로 받들어지게 되었다.
56) 금장태, "정암 조광조(靜菴 趙光祖): 선비정신의 표상", 『야곱의 우물』 18권 1호, 2011, 40-43 참조. 1569년 선조가 즉위하자 조광조에게 文正으로 시호를 내렸으며, 공자의 文廟에 배향하여 그를 조선사회의 스승으로 받들게 했다.

직책이다. 선비들의 가장 활발한 관직활동으로는 경연관(經筵官)·언관(言官)·사관(史官)을 들 수 있다. "선비들은 나라의 정책이 잘못되었을 때 목숨을 걸고 상소나 간언을 하기도 하였고, 부패한 조정의 관리에 대해 비판적 견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57] 권력의 남용이나 어긋난 독주가 있을 때마다 선비 사회의 간풍(諫風)이 가장 큰 압력이 되었고, 이 압력 때문에 그것이 저지되었으며 또한 그 간풍 때문에 많은 선비들이 의롭게 죽어갔던 것이다.

조선조에서 이러한 선비들이 배우고 실천해야 할 내용이 바로 '명인륜'(明人倫)이었다.[58] 인륜을 밝힌다는 것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밝히는 것이다. 선비들에게 중심이 되는 인륜은 삼강오륜(三綱五倫)이다. 삼강 중에서도 특히 선비들에게는 신하로서의 충(忠), 자식으로서의 효(孝)가 중시되었고 스승에 대한 제자의 직분이 강조되었다.[59]

그리고 선비가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중시했던 수칙(守則)은 사유(四維)이다. 사유란 『관자』(管子)에 나오는 구절로써 예(禮)·의(義)·염(廉)·치(恥)를 가리킨다.[60] 사유는 중국의 사대부뿐 아니라, 우리나라 선비에 있어서도 늘 강조되어 왔는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선비들이 더욱 숭상했다.[61] 선비의 행동거지는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하므로 거동하면 반드시 예(禮)를 생각하고, 어떤 일을 행하면 먼저 의(義)를 생각해야 했다. 이해와 의리가 상충될 때 의리를 지켰고, 의리와 명분이 생명보다 중시되었다.[62]

선비들은 이 사유 중에서 '염치'(廉恥)를 가장 경계했는데, 선비가 일반 사람들과 다른 것은 염치의 유무로 구별될 수 있다 하여 염치를 선비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보았다.[63] 신흠(申欽)은 "젊어

57) 이선희, 『의리사상을 중심으로 본 선비정신』,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20.
58) 성균관이나 향교에서 '明倫堂'이라는 편액을 걸어놓고 수업을 한 것 역시 인륜을 밝히는 것이 선비들의 삶의 목표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59) 권문봉, 앞의 책, 202-203 참조.
60) 『管子』, 「牧民」 第1, "何謂四維 一曰禮 二曰義 三曰廉 四曰恥."
61) 이장희, "朝鮮時代 선비像", 41-53 참조.
62) 권문봉, 앞의 책, 203 참조.

서 좋은 의복이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 하고 장성해서 차마(車馬)나 치장하고 재산이나 모으려고 하면 그것은 선비라고 할 수 없고, 설사 날마다 경전을 외우고 성명(性命)을 논한다 하더라도 다 위선일 뿐이다"[64]라고 하였고, 기대승(奇大升)도 "선비의 평생의 업(業)이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는 것이 아니라"[65]고 하였으며, 정약용(丁若鏞)은 선비의 몸가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옛부터 지혜가 깊은 선비는 청렴으로써 교훈을 삼고 청빈으로써 경계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청(淸)과 검(儉)이 관리의 기본자세(莅官之本)요 몸가짐의 근본(持身之基)이라, 선비의 청렴은 여인의 정결과 같아서 한 털끝의 오점이라도 생긴다면 죽을 때까지 흠결을 면할 수 없다.[66]

선비들은 이런 정신에 따라 남에게는 후하고 자신에게는 박하게 하는 박기후인(薄己厚人)의 정신을 체질화하여 청빈하고 검약한 생활방식을 자연스럽게 몸에 익혔다. 이러한 청렴정신을 관직생활에서 실천하면 청백리(淸白吏)가 되는 것이다. 조선왕조는 세종 때의 황희(黃喜)·맹사성(孟思誠)·유관(柳寬)을 비롯하여 수많은 청백리를 배출한 것으로 유명하다.

철저할 정도로 지조와 의리를 중히 여겼던 조선의 선비들의 정신은 한말(韓末)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1886년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이항로(李恒老)·기정진(奇正鎭) 등은 주전론(主戰論)의 상소에서 '주전론을 따르면 옛 문화전통을 따를 수 있고, 주화론(主和論)을 따르면 인류를 짐승의 지역에 몰아넣게 된다'고 하여 항쟁을 요구하였고, 을사늑약과 경술국치를 당하자 송병선(宋秉璿)·박세화

63) 『세종실록』 59卷, 世宗 15년 2월 癸亥條, "司諫院上疏曰 廉恥士之大節 廉恥道喪貪風日滋."
64) 申欽, 『象村集』, 53卷, 「求正錄」, "少而欲好衣服美飮食 長而欲治車馬盛蓄積者 皆非士也 有一於時 號日誦經傳 日談性命 僞而已."
65) 奇大升, 『高峰全書』, 「續集」, 2卷 上從兄書, "蓋士君子平生之業 不在溫飽."
66) 丁若鏞, 『與猶堂全書』, 5集 17卷, 「牧民心書」, 2卷, "自古以來 凡智深之士 無不以廉爲訓 以貧爲戒 裵俠曰 淸者莅官之本 儉者持身之基 律己箴曰 惟士之廉 猶女之潔 苟一毫之點汚 爲終身之玷缺."

(朴世和)·황현(黃玹) 등의 선비들이 자결하였으며, 특히 박세화는 단식자결 중 '예의조선'(禮義朝鮮)의 네 글자를 남겼다. 최익현(崔益鉉)·김복한(金福漢)·허위(許蔿) 등은 의병을 일으켰고, 이승희(李承熙)·박은식(朴殷植) 등이 만주나 중국 등지로 망명한 것은 유교적 신념의 의리정신을 행동으로 실천한 예이다.[67]

2. 초기 조선 천주교회에서의 선비들의 역할

조선사회가 천주교를 처음 알게 된 것은 17세기 초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한역서학서(漢譯西學書)를 통해서이다. 당시 조선조의 유교적 엄연한 분위기 속에서 천주교 수용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학문적 차원을 넘어 신앙운동으로까지 나아간 이들은 남인파 사람들이다. 이들은 서울·경기 인근의 남인들, 이른바 근기남인들로서 탈성리학적이고 본원유학 지향적인 독특한 학풍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관념론적이고 무신론적인 성리학의 이기론을 탈피하여, '경천애인'으로 표방되는 유학의 종교적이고 윤리적이며 실천적인 본래의 정신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천주교를 수용한 주체들인 이 근기남인들은 당시 권력체계에서 소외된 재야의 학자들이었다. 천주교는 결국 이들 양반 신분으로 비교적 상류층에 속한 특수 계층인들에 의해 170년간의 진지한 검토와 인내를 거쳐 자생적 신앙공동체로서 탄생을 보게 된다.[68] 이벽·이승훈·권철신 형제·정약용 삼 형제 등, 그들은 어려서부터 사서오경(四書五經) 등 유교경전을 외우며 성장하여 유교적 가치관이 골수까지 배어있던 유교의 선비들이었다.

이들에 의해 시작된 천주교 신앙은 교회가 창설된 지 1년도 못되어 서울과 경기도 마재·양근·포천, 충청도 내포·예산, 전라도 전주·진산 지방으로 삽시간에 확산되었다. 각 지역의 초기 중요한 신

67) 권문봉, 앞의 책, 195, 198 참조.
68) 이대근, 『한국 종교사상사』, 가톨릭문화총서 39, 가톨릭출판사, 2015, 269-270 참조.

앙공동체들은 대부분 권철신의 가문·학통과의 일정한 연계 속에 형성되었는데, 그 주도 인물들은 한결같이 유수한 선비들이었다.[69] 그리고 1786년 조직된 가성직단의 구성원들도 대다수가 선비들인 것을 보면, 초기 조선 천주교 운동을 이끈 주역들은 선비들임을 알 수 있다.

1791년 조상제사 금령으로 인해 양반 지식층들이 일시적으로 교회를 떠나고, 중인 및 양인, 부녀자 계층으로 신자들의 중심이 이동하지만[70] 그것은 양적인 측면일 뿐, 양반 선비층은 여전히 일정한 비중을 지니고 교회의 주도세력으로 남아있었다. 특히 조선 천주교회사에서 교리·영성·정신의 토착화된 양태를 창출하고 그 흐름을 이끌어간 인물들은 여전히 정약종·황사영·정하상·김대건·최양업 등 선비들이었다.

어떤 경우든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일 땐 기존의 가치관(사상)을 바탕(전이해)으로 수용하게 된다. 만일 양자간에 차별성이 없다면 수용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되지만, 반대로 양자간에 동질성이 없다면 그것은 수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조선 천주교회 자생의 주역이고, 천주교 신앙을 지키고 주도해간 핵심 그룹인 선비들이 지녔던 유교적 가치관, 그리고 그 안에 배어 있는 선비정신이 그들이 새롭게 받아들인 천주교 신앙과 순교정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음을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다.

천주교를 수용한 주체는 어려서부터 유학을 배워 익히면서 유교문화 속에 성장한 양반 지식층(선비들)이었다. 그들이 받아들이고 또 오랜 토착화 작업을 거쳐 형성해간 신학은 서구적인 천주교 그대로가 아니라 유교사상과 접목된 보유론(補儒論)[71]적인 천주교 사

69) 권철신·권일신 형제(양근), 정약전 3형제(광주), 윤유일·김건순(여주), 홍교만(포천), 이존창(내포), 이기연(충주), 유항검(전주), 윤지충(진산) 등이 그들이다.

70) 이대근, 『조선후기 천주교 수용 연구』, 119, 204-206 참조.

71) 보유론은 유교의 가르침을 인정하면서, 천주교 신앙을 유학의 불충분한 부분을 보충하고 완결시켜 주는 상위의 윤리·신앙체계의 선교 이론으로, 천주교 교리가 유교와 다른 이질적인 사상이 결코 아님을 강조하는 견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쓰인 교리서가 『天主實義』이다.

상이었다. 보유론적인 신관에 있어서 천주교의 '천주'(天主)는 유교의 '상제'(上帝)와 동일시되고, 유교의 충·효의 개념은 하느님께 대한 신앙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초기 천주교의 기록들 속에서 신자들과 순교자들은 하느님을 '대군대부'(大君大父) 혹은 '대부모'(大父母)로 고백하고, 하느님께도 대충대효(大忠大孝) 하는 자식으로서의 도리가 강조되었다.

유교의 합리적이고 윤리적 성격과 엄숙하고 절제된 의례 분위기는 초기 천주교의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종교문화와 엄숙하고 경건한 전례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일조하였다. 유교적 도덕 관념(권선징악)은 조선의 신자들이 상선벌악의 공의(公義)의 하느님 상(像)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72]

비록 제사금령과 신해박해 이후 보유론적인 천주신앙이 그 한계를 노출하면서 천주교 신앙의 보다 고유하고 정순한 이해로 나아가는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여전히 조선 천주교회 신자들에게 있어서 보유론적인 하느님 이해가 그 중심에 자리잡고 있음을 순교기록 속에 나타나는 그들의 신앙고백을 통해 알 수 있다.[73]

중요한 사실은 양반·선비 계층뿐 아니라 중인·양인·부녀자 계층도 보유론적 천주교 이해의 바탕 위에 일관된 신앙고백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곧 하느님을 대군대부로 이해하고 충효의 범주 속에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토착화적 모델이 그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74] 그렇다면 조선조 선비들의 의식구조를 지배했던 선비정신 역시 전체 신자 계층의 의식구조 형성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음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두 가지 성찰을 바탕으로, 유교의 선비정신과 그리스도교의 순교정신 사이의 차별성과 상호접합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아주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

72) 이대근, 『한국 종교사상사』, 271-273 참조.
73) 이대근, 『조선후기 천주교 수용 연구』, 279-332 참조.
74) 참조: 샤를르 달레, 『韓國天主教會史』 上, 中, 下, 안응렬·최석우 역, 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기해일기』, 『치명일기』, 『邪學懲義』 와 관변 기록들.

Ⅴ. 선비정신과 순교정신의 차이와 접목

1. 선비정신과 순교정신의 차별성

유교의 선비정신과 그리스도교의 순교정신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1) 선비정신이 가치 지향적인데 비해 순교정신은 인격적(人格的)이다.

조선시대의 선비가 추구했던 모델은 '군자'인데, 군자는 진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유교의 구도자이다. 이 군자가 지향하는 최종적 목표, 이상적 인격이 '성인'(聖人)이다.[75] 그러나 유학에 있어서 요(堯)·순(舜)·문(文)·무(武)·주공(周公)·공자(孔子) 등이 성인으로 간주되고 있긴 하지만, 그들은 과거의 존재들일 뿐이다. 성인의 개념은 구체적 인격이라기보다 이상화된 관념일 뿐이다. 선비가 목숨을 바쳐 행하려고 하는 진리(義理)는 성인들의 가르침, 경전에 담겨 있는 도덕적 가치 곧 도그마(道理)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순교영성의 특징은 인격적이라는 데 있다. 박해시대에는 순교가 스승인 그리스도와 가장 긴밀히 일치하는 방법이고, 모범인 그분을 제일 가까이 따르는 길로 여겨졌다. 예수는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 15,13)"[76]라고 가르치셨고, 순교는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신 그분 사랑에 대한 응답이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Clemens, 150-215)가 순교를 "애덕의 완성"[77]이라고 정의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하느님께 드리는 최고의 사랑이며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면서 순교에 대한 염원을 표현했던 것이다. 순교는 신앙의 조문

75) 서은숙, 『孔孟思想에 나타난 德性涵養에 關한 硏究』,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8, 75 참조.
76) 『공동번역 성서』
77)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양탄자』(*Stromata*) 4, 4.

을 증거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과의 인격적 만남 속에서 그분을 증거하는 행위이다.[78] 곧 순교의 동기가 어떤 이념의 실천이 아닌 인격적 결합에 있다.

2) 선비정신이 자력적인데 반해 순교정신은 타력적이다.

유교사상 안에도 천·상제에 대한 자각과 숭경(崇敬)의 요소가 있다. 그러나 그들의 윤리적 실천이나, 의(義)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행위는 오로지 내면의 도덕적 명령에 따른 것이고, 오랜 자기 수양에 따른 결실이다. 곧 의지적·자력적 요소가 강하다.

이에 반해 그리스도교 영성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과 사랑의 최상의 증거인 순교는 또한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이다.

> 순교자들은 소중한 목숨을 바치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 자신들의 힘이나 덕 또는 인간적 영웅심으로 가능한 것이 아님을 잘 깨달은 이들이었다. 그들은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자기들의 연약함(2코린 4,7)을 자각하고 겸손되이 인정하면서 그들 안에 성령의 은총이 충만할 때 비로소 순교가 가능함을 고백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감옥 안에서도 열렬한 애덕을 실천하면서, 모든 성인의 통공 안에서 일치하는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의 도움을 청하였고 또한 성령의 특별한 힘을 끊임없이 간구했던 것이다. 한편 순교의 은총이 결정적으로 허락되었을 때 그들은 천상적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하였다.[79]

3) 선비정신이 인륜의 명분(名分)을 지향하는데 비해 순교정신은 신적·초자연적 생명을 지향한다.

조선조 선비가 가장 중요시한 것이 명분이다.[80] 유학이 추구하는

78) 참조: 한국가톨릭대사전편찬위원회 편, "순교", 앞의 책, 697; 박재만, "순교", 『한국가톨릭대사전』 8, 5160-5161.

79) 박재만, "순교 영성의 재발견을 위한 시도", 11-12.

80) 명분은 마땅히 지켜야 할 바(본분)이다. 명분은 공자의 正名사상과 상통하여 正名의 '名'과 일치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흔히 우리말로는 '이름값'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맹자는 명분을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함으로써 인륜의 기본을 제시하였다. 부모와 자식, 임금과 신하, 연장자와의 관계, 진정한 교우관계 등 오륜

최상의 가치는 물론 하늘이 부여한 소명(天命)을 따르는 것이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인의예지·삼강오륜과 같은 도덕적 덕목들이나 인륜관계의 규범들이다. 선비가 청렴·절개를 지키고 멸사봉공(滅私奉公)하는 이유는 육체적 생명보다 그러한 도덕적 명분과 후세의 명예를 더 가치있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적·현세적 가치체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순교의 목적은 초자연적 세계에 있다.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교의 순교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인 '하느님과의 일치'를 위해서 죽음에 이르고자 하는 종말론적 가치를 지닌다.[81]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순교자 이연희(마리아)의 증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녀는 모든 마음을 바쳐 천주를 진실히 사랑했고 그 영혼의 원은 오직 천국을 향해 있었다."[82] 이것이 순교자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속해있지 않았기에 어려운 처지에서도, 끌려가면서도, 감옥에서도, 고문 중에도, 그리고 처형 당하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이유이다.

2. 순교정신의 기반으로서의 선비정신

초기 조선 천주교회 신자들의 순교는 그들의 하느님 체험과 그리스도교 자체의 영성에 바탕을 둔 신앙고백 행위였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교의 선비정신이 그들의 순교정신에 미친 영향은 핵심요인은 아닐지라도 보조요인으로 작용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양자 간의 상호접합점을 통해 그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 그것이다. 만약에 이 윤리규범을 어기거나 무시하면 명분을 거슬리는 것이다. 선비는 목숨보다 명분을 더 중시하였다. 손윤탁, 앞의 책, 33-34 참조.

81) 방효익, 『영성사』, 바오로딸, 1996, 34 참조.

82) 아드리앵 로네·폴 데통베, 『한국 순교자 103위전』, 안응렬 역, 가톨릭출판사, 1995, 96.

1) 선비정신이나 순교정신이 모두 정학(正學)과 사학(邪學)에 대한 분명한 기준 위에서 목숨을 바쳐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조선의 선비들은 자신들이 배운 유학적 가치관에 대한 소신을 바탕으로 정(正)과 사(邪), 의(義)와 불의(不義)를 분명하게 구별했다. 곧 척사위정(斥邪衛正), 경리중의(輕利重義), 사생취의(捨生取義)의 관념이 명확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바에 대해 죽음과 절개로 그것을 지키려고 했다. 이러한 선비정신이 천주교 신앙을 수용할 때 접목되어 자신이 받아들인 교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 비타협·불굴의 기개, 위주치명(爲主致命)의 호교론적 태도 등이 순교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사실 박해 당국자들은 천주교를 사교(邪敎)이며, 그 교리는 혹세무민의 패리(悖理, 이단사설)라고 생각했다.[83] 그러나 순교자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천주교는 결코 사교가 아니며, 오히려 정도(正道)이고 정학(正學)이며 경천외천(敬天畏天)의 학문이고 '참된 종교'라고 당당히 증언했다.[84] 이를테면 정약종(아우구스티노)은 의금부에 압송되어 신문을 받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저는 본래부터 이것이 정학이라고 알고 있었을 뿐이지 사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공정하고 지극히 진실한 도리이므로, 비록 만 번 죽음을 당할지라도 조금도 뉘우칠 마음이 없습니다. 삶을 바라고 죽음을 꺼리는 것은 인지상정이니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의(義)를 배반하고 사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85]

홍교만(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역시 의금부 문초 때 다음과 같이 유교의 가르침을 그대로 천주교에 접목하는 답변을 하여 박해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

83) 참조: 조광, 『朝鮮後記 天主敎史 硏究』, 민족문화연구총서 21,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8, 84-85; 샤를르 달레, 『韓國天主敎會史』 上, 337, 423.

84) 참조: 『日省錄』, 憲宗 己亥 8월 19일; 샤를르 달레, 『韓國天主敎會史』 上, 337, 427; 샤를르 달레, 『韓國天主敎會史』 中, 127, 136-137, 176, 474.

85) 『推案及鞫案』, 辛酉邪獄罪人李家煥等推案, 정약종 공초(1801년 2월 12일).

> 도리의 큰 근본은 하늘에서 나오는 것(道之大原出乎天)이라 하고, 또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 이르고(天命之謂性), 오직 상제께서 백성들에게 올바른 성품을 내리신다(惟皇上帝 降衷烝民) 하여 함께 하늘을 공경하라는 뜻을 내셨으니 어찌 이를 사학이라고 하겠습니까?[86]

전주 숲정이에서 순교한 신태보(베드로)는 법정에서 "저는 사교를 믿지 않고 천주의 교리를 따를 뿐입니다. …우리 교는 우선 마음속을 다스리고 칠극(七克)과 천주십계(天主十戒)로 안과 밖을 모두 지도합니다. 우리 교(敎)는 공자와 다른 성현들의 가르침을 완성한 것입니다"[87]라고 자기 소신을 명확히 밝혔다.

김천애(안드레아)는 전주 감영과 형조에서 문초를 받으면서 "천주교는 큰 도리요 지극히 훌륭한 행위로, 여러 해 동안 깊이 믿어 이미 뼈 속까지 사무쳐 있습니다. 형벌과 죽음은 영예로운 일이니, 어찌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88]하여 그의 소신을 꺾지 않았고, 김종교(프란치스코)도 "저는 세례와 세례명을 받으면서 천주학을 바른 길로 인정했습니다. 이제는 형벌과 문초를 당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뉘우칠 뜻이 없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만 번 죽는다 하더라도 실로 감심(甘心)하는 바입니다"[89]라고 증언하며 순교의 길을 택했다. 이러한 정학(진리·義)에 대한 확신이 순교의 바탕이 되었다.

2) 선비정신과 순교정신은 충(忠)·효(孝)라는 보유론적 관점에서 상호 접합하였다.

조선조 선비정신의 골자는 지조와 의리정신이다. 선비들은 육적인 생명보다 더 큰 도덕적 가치를 추구했다. 그들이 살신성인·사생취의의 정신으로 지킨 '의'(義)는 '인륜의 가치'였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충과 효로 집약된다. 그들은 혈육의 정보다 도의를 우선으로

86) 『推案及鞫案』, 辛酉邪獄罪人李家煥等推案, 홍교만 공초(1801년 2월 14일).
87) A. Daveluy, *Notes pour l'Histoire des Martyrs de Corée*(1860년 필사 정리), vol. 4, M.E.P. 소장, 289-304.
88)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闢衛編』(李基慶 編), 서광사, 1978, 425.
89) 『邪學懲義』 1卷, 正法罪人秩, 112, 114.

했고, 효와 충의 가치가 대립할 땐 충을 상위의 가치로 선택했다.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은 천주를 우주의 큰 임금(大君)이요 부모를 통해 생명을 주신 참 부모(大父母)로 고백했고, 천주라는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유교의 최고 가치인 충과 효를 상대화시켰다. 천주교는 무군무부(無君無父)요 불충불효(不忠不孝)의 가르침이라는 박해의 논리에, 신자들은 천주교는 대군대부(大君大父)와 대충대효(大忠大孝)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보유론적 논리로 반박하였다. 그들은 천주십계 4계명을 들어 부모와 임금에 대한 효를 고백했지만, 그것이 천주에 대한 도리와 상충할 땐 주저없이 상위의 가치를 선택했다. 재산·명예·신분·혈육의 정, 그 어떤 것도 천주보다 위에 두지 않았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윤지충은 천주교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천주를 큰 부모로 여기는 이상 천주의 명을 따르지 않는 것은 결코 공경하고 높이는 뜻이 못 됩니다."[90] 정약종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관장에게, "천주는 곧 천지의 큰 임금이요 큰 아비이니, 천주를 섬기는 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천지의 죄인으로 살아도 죽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91]라고 답하였다.

홍교만은 천주를 위해 순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천주는 곧 큰 부모이니 큰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면 이는 부모를 부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니…"[92]라고 하였고, 최필공(토마스)은 배교의 유혹과 형벌 속에서도 "큰 부모를 위해 죽는 것이 실로 효도가 된다"[93] 하면서 순교의 굳은 의지를 표현하였다.

권일신의 딸 권 데레사는 배교하라는 명에, "천주는 만인의 어버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시온데 어찌 제가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자기 부모를 배반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

90) 『正祖實錄』 33卷, 正祖 15년 11월 7일 戊寅.
91) 『推案及鞫案』, 辛酉邪獄罪人李家煥等推案, 정약종 공초(1801년 2월 12일).
92) 『推案及鞫案』, 辛酉邪獄罪人李家煥等推案, 홍교만 공초(1801년 2월 14일).
93) 『正祖實錄』 33卷, 正祖 15년 11월 7일 戊寅.

할진대 하물며 만인의 대부이신 분을 배반할 수는 없습니다"[94]하고 효의 도리를 들어 이를 거부했고, 최해성(요한)은 혹독한 형벌로 살이 찢어지고 뼈가 드러났으나 배교하라는 말에, "임금과 의(義)를 위해 죽겠다고 약속하고 나서 배반하는 백성이 있다면, 그는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위대한 하느님을 섬기겠다고 맹세한 제가 어찌 형벌을 두려워하여 이를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95]하며 충의 도리를 들어 이를 거부하였다.

안군심(리카르도)은 법정에서 불충불효를 꾸짖는 관장에게, "천주는 대군이시오 만인의 아버지이시니 우리가 그분을 만유 위에 공경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며 임금님, 관장나리들, 부모님을 우리는 천주 다음으로 공경합니다"[96]라고 대충대효의 도리를 설했고, 이경언(바오로)은 모자 간의 정을 들어 회유하는 감사에게 "천주는 만인의 큰 임금이시며 아버지시라, 제 모친도 그분에게 조성함을 받았으니 어찌 피조물을 위해 조물주를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97]라고 말하며 충·효의 서열을 들어 명확하게 답변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례는 순교기록 곳곳에서 수없이 나타나고 있다. 한결같이 그리스도교의 순교정신이 유교 선비들의 충효정신의 토대 위에서 고백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교 복음 안에서 승화되고 거양된 한국적 최고 사랑의 표현인 충효, 토착화된 복음적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충효이다.[98]

3) 선비들의 청렴·검약의 정신은 선비 출신 순교자들이 박해로 인한 빈곤과 역경을 견뎌내는 데 도움을 주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처신하는 데 있어서 예의염치(禮義廉恥: 四維)

94) 다블뤼 주교,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 내포교회사연구소, 2014, 94.
95)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시복 시성 주교 특별위원회,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순교자 123위』, 시복 시성 주교 특별위원회, 2003, 273-274.
96) 다블뤼 주교, 앞의 책, 111.
97) 샤를르 달레, 『韓國天主敎會史』 中, 149.
98) 박재만, "순교 영성의 재발견을 위한 시도", 14 참조.

를 중요시하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염치였다. 그러한 까닭에 선비의 청렴은 여인의 정결과도 비유되었다. 선비에게 걸맞는 삶의 태도는 '안빈낙도'(安貧樂道)이다. 쉽게 설명하면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긍정적인 생각으로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다. '선비가 도에 뜻을 두고도 허름한 옷과 거친 음식을 부끄러워하면 함께할 상대가 못된다', '의롭지 못한 부귀는 내게 뜬구름과 같다'고 했던 공자의 가르침처럼, 선비는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선비는 물질적 풍요는 진리탐구를 위한 자유로운 정신활동을 제약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물질보다는 정신에 더 무게를 두고자 했던 것이다.[99]

박해 시에 천주교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의미했다. 천주교 신자들의 재산과 소유물들은 정부로부터 몰수되고, 끊이지 않는 박해를 피해 생존자들은 고향을 떠나 산간벽지에 숨어살면서 교우촌을 형성하였다. 그들은 궁핍한 가운데서도 신분의 차별 없이 조금 있는 재물을 나누며 살았다.[100] 초기 교회 신자들이 신앙 때문에 겪어야 했던 십자가의 어려움을 북경 주교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소나마 관찰할 수 있다.

> 부유했던 교우들이 가난하게 되었고, 가난한 교우들은 동냥질을 하고 의지할 곳 없이 떠돌아다니게 되어 목숨을 이어나가기에도 천하에 없는 고생을 하게 되었나이다. 그러하오나 그들이 원망하거나 불평함을 듣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은 천주를 봉행할 수 있기 위하여 떠돌아다니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나이다. 이것이 저희들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특별한 가호가 아니겠나이까.[101]

---

99) 전세영, "선비정신의 현대적 의의", 『한국시민윤리학회보』 19, 한국시민윤리학회, 2006, 20 참조.

100) 강석진, "19세기 조선 교회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 『교회사연구』 45, 2014, 101-103 참조.

101) *Lettra dei Cristiani di Corea a mons*, Vescovo di Pechino, in SC cina, 1812-1820, vol. 4, 350b를 박재만, "순교 영성의 재발견을 위한 시도", 『司牧』 155, 1991, 9에서 재인용.

그러나 “순교자들은 신앙의 목적이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은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도 조금도 비굴해지지 않고 당당하고 기쁘게 믿음을 증거했던 것이다.”[102]

서민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분·재산·토지·노비를 소유했던 양반 선비들은 기득권 포기로 인해 주어지는 고통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신앙적 체험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지만, 조선의 선비들의 몸에 깊숙이 배어있던 청빈·검약·지조의 정신[103]도 거기에 긍정적 기여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4) 조선조 선비 집안 여인들의 정절 관념과 초기 조선 천주교회 동정 관념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 선비정신은 남자에게만 길러지는 것이 아니었다. 소녀들도 ‘소학’(小學)의 기초 과정을 착실히 밟았고, 출가한 후에도 품 속에 ‘은장도’를 지니는 등 정절을 생명보다 귀히 여겨 충신의 불사이군(不事二君)에 여인은 불사이부(不事二夫)의 삶을 영위하면서 선비를 따랐다.

여자의 도로서 어렸을 때 부모를 따르고, 혼인하여서는 남편을 따르고, 늙어서는 자식을 따르는 삼종지의(三從之義)를 몸소 실천하였다. 혹 인륜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으면 자결로써 순결을 지켰고 나라에서는 열녀문(烈女門)을 세워 만민과 후손에 귀감이 되게 하였다. 선비가 선비다울 수 있었던 것은 여인들의 순결 정신이 강했기 때문이었으며, 부인들의 순결은 정절로 나타났다.[104]

조선 천주교회는 초기부터 순결·정절을 강조하며 이를 고귀한 행위로 규정했다. 성리학적 정결관과의 뚜렷한 차이점은 정절을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요구되던 가치가 아닌 남녀 간의 쌍무적 가치

102) 배은하, “21세기 순교신앙의 의미”, 『사목정보』 9, 미래사목연구소, 2008, 10.
103) 조선 선비들의 청빈·검약의 생활모습을 보여주는 수많은 일화와 민담·속담들은 이규태, 『선비의 意識構造』, 신원문화사, 1984, 208-225, 329-368 참조.
104) 노상오, “선비정신의 연구”, 『부산교육대학 논문집』 31, 1995, 1-18 참조.

로 이해했다는 점이다.[105] 또한 교회는 정절의 궁극적 표현인 동정(童貞)은 가장 가치있는 것으로 높이 평가했다.[106] 동정이란 결혼 적령기의 신자가 남성이나 여성을 불문하고 자신의 전체를 천주께 봉헌하여 독신생활을 유지하는 삶의 형식이다. 이러한 동정의 삶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대한 포기를 뜻하며, 이 포기의 정신은 곧 천주를 위한 목숨의 포기와도 연결될 수 있는 결단을 말했다.[107]

박해시대 신자들 가운데 완벽한 순결을 지향했던 이들로는 흔히 '동정부부'라는 특이한 명칭으로 불리는 유중철과 이순이, 조숙과 권천례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108] 이 동정 부부들의 존재는 19세기 당시 조선 교회의 독특한 영성과, 수도원이 없었던 박해시대의 상황이 낳은 특이한 삶의 양식이었다. 그밖에 남성이 독신 생활을 통해 순결을 지키고자 시도했던 사례도 있었다.[109]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에도 동신(童身)으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동정녀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자 노력했다.[110] 또 혼인생활을 하던 신자들이 금욕생활로 전환했던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111]

이상 언급한 순결·정절의 여러 유형들은 각각 양상은 다르지만 한결같이 주님께 대한 온전한 자기 봉헌의 표현들이다. 이는 백색

105) 참조: 샤를르 달레, 『韓國天主教會史』 上, 183-197; 김정숙, "조선후기 서학수용과 영성관의 변화", 『한국사상사학』 20, 2003, 44-45.

106) 당시 교회는 순결에 등급을 규정했는데, 이를테면 동신동녀(童身童女)의 순결을 금으로 보았고, 홀아비나 과부의 순결을 은으로, 부부 간의 순결을 동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등급이 정해진 까닭은 가족 문제에 마음을 쓰지 않고 오직 하느님의 일에만 투신할 수 있는 삶을 동신 내지 독신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김진소, 『천주교 전주교구사』, 빅벨, 1998, 179 참조.

107) 참조: 샤를르 달레, 『韓國天主教會史』 中, 95; 김정경, "조선후기 천주교 여신도들의 삶과 죽음", 『여/성 이론』 27, 여이연, 2012, 212-217.

108) 빤또하, 『七克』, 교회사연구총서 6, 박유리 역, 일조각, 1998, 330 참조.

109) 브뤼기에르 주교의 서한에는 "여자들 가운데 수절을 서원한 사람이 많이 있었으나 남자 교우들 중에는 그보다 적다"고 기록하였다. 이는 남자 동정자도 있었음을 의미한다. 샤를르 달레, 『韓國天主教會史』 中, 294 참조.

110) 참조: 이미진, "조선후기 천주교 '女教人 共同體家'의 형성과 변천과정: 4대 박해를 중심으로", 『성신사학』 13, 1995, 96-97; 강석진, 앞의 책, 106-107.

111) 조광, "박해시대의 동정부부", http://blog.daum.net/0aintersclub/6313737(검색일: 2016.3.5).

순교와 같은 그리스도교 순교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 그러나 비록 그것이 순수한 천주교적 신앙행위이지만,[112] 정절·열녀 관념을 중요시한 유교적 전통과 선비 집안의 가풍과 무관하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동정을 지킨 여성들의 경우 선비 집안 여인들에게 깊이 박혀있던 정절·절개 관념이 무의식적으로 천주교 신앙과 합하여져, 그 불사이부(不事二婦)의 대상이 남편이 아닌 주님께로, 더욱 큰 사랑의 대상으로 승화된 양태라고 할 수 있다. 남성의 동정이나 금욕의 경우도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절개 개념과 온전한 충(忠)의 관념을 임금이 아닌 진정한 임금이신 하느님께 적용시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Ⅵ. 나가는 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비정신은 우리 민족 고유의 선비 관념에서 출발하여 유교적으로 그 내용이 재정립된 것이다. 유교의 선비(士)는 본래 신분·계급을 지칭하는 말이었지만, 후에 교양·인격을 표현하는 말로 변화되었다.

조선조에서의 선비는 일부 타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었다. 청빈정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고야 마는 서릿발 같은 기개, 일관된 지조 지킴과 종교적이라고 할 만한 엄숙주의, 그 속에 간직한 유머와 여유로움, 탁월한 자기 제어력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우선하는 태도 등의 특징이 그것이다.[113]

본고에서는 그 중 의리정신(지조·기개)에 초점을 맞춰 이를 순교정

112) 당시 천주교적 정절의 의미는 이미 『천주실의』와 『칠극』을 통해서 제시되었다. 또한 완벽한 순결을 갈망하는 여성 신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책으로 『성년광익』, 『성경직해광익』과 『성교요리문답』, 『성교절요』, 『아가다 성녀전기』 등이 있었다. 하태진, “조선후기 이순이의 동정관 형성과정”, 『전북사학』 37, 2010, 211-224 참조.

113) 정옥자,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선비』, 6, 12-49 참조.

신과 비교해 보았다. 유교의 선비정신과 천주교의 순교정신 사이에는 양자 간의 본질적 차이와 고유성도 있지만, 선비정신이 순교정신과 연계될 수 있었던 상통점들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고찰하였다.

현대의 자본주의적·물신(物神)주의적 가치관 속에서, 시류(時流)와 타협하지 않고 당당했던 선비정신이 그리워지고 그 재조명이 요청되고 있다. 또한 박해의 시기는 오래전에 끝났지만, 오늘날 박해는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신자들은 여전히 순교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중요한 것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박해를 새롭게 재해석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당하는 온갖 불이익을 참고 견뎌내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순교의 삶일 것이다. 오늘날 순교의 삶에 대해 발터 카스퍼 추기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현세대의 각양각색의 도전들에 직면하여 그리스도교적인 가치를 수호하고 실천하는 증거가 절실히 필요한데, 사실 이 증거가 곧 순교이다.[114]

그의 말대로 "그리스도교적 동기에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위해, 자유를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투신하고 몸을 바치는 것 또한 순교다."[115]

부족하지만 유교의 선비정신과 그리스도교의 순교정신을 비교한 본고가 현대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을 음미하고 살게 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투 고 일: 2016. 3. 28 심 사 일: 2016. 5. 27
수 정 일: 2016. 5. 30 게재확정일: 2016. 6. 3

114) 여진천, "순교의 신학적 고찰",『교회사연구』41, 2013, 190-191.
115) 발터 카스퍼 추기경의 말이다: 조광, "한국 초기 교회와 순교 영성",『사목정보』9, 미래사목연구소, 2014, 119.

참 고 문 헌

1. 고서

『기해일기』
『論語』
『孟子』
『邪學懲義』
『日省錄』
『正祖實錄』
『天主實義』
『推案及鞫案』
『치명일기』

2. 단행본

금장태, 『유교사상과 한국사회』,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7.
_____, 『韓國儒敎의 再照明』, 전망사, 1982.
_____, "정암 조광조(瀞菴 趙光祖): 선비정신의 표상", 『야곱의 우물』 18권 1호, 2011, 40-43.
김양동, 『한국 고대문화 원형의 상징과 해석』, 지식산업사, 2015.
김진소, 『천주교 전주교구사』, 빅벨, 1998.
金忠烈, 『高麗儒學史』, 學術硏究叢書 20, 高麗大學校出版部, 1984.
다블뤼 주교,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 내포교회사연구소, 2014.
로네, 아드리앵·데통베, 폴, 『한국 순교자 103위전』, 안응렬 역, 가톨릭출판사, 1995.
박재만, "순교", 『한국가톨릭대사전』 8, 한국교회사연구소, 2001, 5160-5162.
방효익, 『영성사』, 바오로딸, 1996.
빤또하, 『七克』, 교회사연구총서 6, 박유리 역, 일조각, 1998.
샤를르 달레, 『韓國天主敎會史』 上, 안응렬·최석우 역, 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_____, 『韓國天主敎會史』 中, 안응렬·최석우 역, 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_____, 『韓國天主敎會史』 下, 안응렬·최석우 역, 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신채호,『朝鮮上古史』, 이만열 역주,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 1990.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양탄자』(*Stromata*).
유홍렬,『한국천주교회사』 上, 가톨릭출판사, 2000.
_____,『한국천주교회사』 下, 가톨릭출판사, 2000.
이규태,『선비의 意識構造』, 신원문화사, 1984.
이대근,『조선후기 천주교 수용 연구』, 대전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15.
_____,『한국 종교사상사』, 가톨릭문화총서 39, 가톨릭출판사, 2015.
이동호, "순교",『한국가톨릭대사전』 8, 한국교회사연구소, 2001, 5156-5160.
李魯,『龍蛇日記』, 을유문화사, 1974.
정옥자,『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선비』, 현암사, 2003.
정옥자 외,『시대가 선비를 부른다』, 효형출판, 1998.
정인지,『龍飛御天歌』, 이윤석 역, 솔, 2002.
조광,『朝鮮後記 天主敎史 硏究』, 민족문화연구총서 21,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8.
차기진, "박해",『한국가톨릭대사전』 5, 한국교회사연구소, 2001, 3155-3161.
최근덕,『韓國儒學思想硏究』, 철학과현실사, 1992.
최재목,『退溪先生』 七卷, 國際退溪學會 대구경북지부, 2004.
프란츤, A.,『세계 교회사』, 최석우 역, 분도출판사, 2001.
테르툴리아누스,『호교론』(*Apologeticum*).
한국가톨릭대사전편찬위원회 편, "박해",『한국가톨릭대사전』, 한국교회사연구소, 1992, 446-449.
_____, "순교",『한국가톨릭대사전』, 한국교회사연구소, 1992, 696-697.
한국교회사연구회 편,『闢衛編』(李基慶 編), 서광사, 1978.
한국사목연구소,『세계사』, 사목연구총서 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_____,『국사』, 사목연구총서 2,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시복 시성 주교 특별위원회,『'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순교자 123위』, 시복 시성 주교 특별위원회, 2003.
Daveluy, A., *Notes pour l'Histoire des Martyrs de Corée*(1860년 필사 정리), vol. 4, M.E.P. 소장.

3. 논문류

강석진, "19세기 조선 교회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교회사연구』 45,

2014, 89-123.

권문봉, "전통적 선비정신에 대한 일고찰", 『한문교육연구』 23, 2004, 187-220.

김보록, "神學的 瞑想(XVIII): 殉教의 靈性", 『神學展望』 91, 1990, 134-141.

김정경, "조선후기 천주교 여신도들의 삶과 죽음", 『여/성 이론』 27, 여이연, 2012, 205-221.

김정숙, "조선후기 서학수용과 영성관의 변화", 『한국사상사학』 20, 2003, 35-82.

김희남, 『殉教의 神學的 考察』, 석사학위논문, 大建神學大學 大學院, 1980.

노상오, "선비정신의 연구", 『부산교육대학 논문집』 31, 1995, 1-18.

"로마제국의 박해", http://blog.daum.net/stbdt/19(검색일: 2016.3.3).

류성렬, "21세기에 있어 선비정신의 재조명", 『전남도립대학교 논문집』 2집, 2000, 3-23.

박재만, "교부 시대의 순교 영성(1)", 『경향잡지』 4, 1987, 108-111.

_____, "순교 영성의 재발견을 위한 시도", 『司牧』 155, 1991, 5-36.

배은하, "21세기 순교신앙의 의미", 『사목정보』 9, 미래사목연구소, 2008, 9-12.

서은숙, 『孔孟思想에 나타난 德性涵養에 關한 硏究』,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8.

손윤탁, 『선비精神이 初期 韓國 基督教에 미친 影響』,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2012.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 주교 순교자, "로마인들에게: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서간", 서공석 역, 『神學展望』 24, 1974, 103-112.

여진천, "순교의 신학적 고찰", 『교회사연구』 41, 2013, 181-192.

오석원, "안동 선비문화의 형성배경과 현대적 의의", 『안동의 선비문화』, 아세아문화사, 1997, 15-57.

유재신, "인간의 이상은 君子가 되는 것", 『목회와 신학』 100, 두란노출판사, 1997, 196-197.

이미진, "조선후기 천주교 '女教人 共同體家'의 형성과 변천과정: 4대 박해를 중심으로", 『성신사학』 13, 1995, 77-98.

이선희, 『의리사상을 중심으로 본 선비정신』,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이성무, "선비와 선비사상", 『南冥學』 17卷, 남명학연구원, 2012, 7-36.

이성배, “순교의 신학적 의의”,『展望』11, 1970, 91-103.

이장희,『조선시대 선비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86.

_____, “朝鮮時代 선비像”, 『고문화』 53, 한국대한박물관협회, 1999, 41-53.

전세영, “선비정신의 현대적 의의”,『한국시민윤리학회보』19, 한국시민윤리학회, 2006, 5-34.

조광, “박해시대의 동정부부”, http://blog.daum.net/0aintersclub/6313737 (검색일: 2016.3.5).

_____, “한국 초기 교회와 순교 영성”,『사목정보』9, 미래사목연구소, 2014, 116-119.

최승기, “순교 영성의 현대적 의미”,『신학과 실천』42, 2014, 525-551.

하태진, “조선후기 이순이의 동정관 형성과정”, 『전북사학』 37, 2010, 211-224.

□ Abstract □

The Connection between the Spirit of Sien-bi and the Spirit of Christian Martyrdom in the early Korean Catholic Church

Lee, Dae Keun

This study aims for the proper understanding of the spirit of Sien-bi, and to make a connection with the spirit of religious martyrdom in an effort to reestablish the spirituality of early catholicism of Choseon Dynasty in the context of traditional thoughts.

The word 'Sien-bi', which means ① a scholar ② a learned man ③ a man of virtue, was a particular notion of Korean people. But as Confucianism was introduced and handed down, the tradition of the 'spirit of Sien-bi' was formed, becoming the govern ideology for 500 years of the Choseon Dynasty. Sien-bi in the Choseon Dynasty, valued most the virtues of integrity, honest poverty, simplicity, moderation and justice. These values were based on the teachings of Confucius and Mencius.

On the other hand, religious martyrdom is an act of faith that bears testimony to the Truth, revealing the existence of the Lord by giving one's own life. It can be said that the 'spirit of religious martyrdom' was the faith expressed during the early Korean Catholic Church. The people who received the Christian faith were the Sien-bi who have been raised in the Confucianist environment. Consequently, Christian faith were received on the foundation of the spirit of Sien-bi.

The spirit of Sien-bi in Confucianism and the spirit of religious martyrdom in Christianity is distinct in its essence(doctrinal/personal,

self-effort/dependant, worldly/supernatural). But this study argues in several points that the spirit of Sien-bi had been the foundation and it was the most influential element on the forming of the spirituality of religious martyrdom.

First, the spirit of Sien-bi and the spirit of religious martyrdom share the common ground on the spirit of seeking the Truth. Second, the spirit of Sien-bi and the spirit of religious martyrdom both have clear standards for 'good teachings' and 'bad teachings'. Third, the spirit of Sien-bi and the spirit of religious martyrdom both were the ways of expressing the important values such as loyalty and filial piety. Fourth, the spirit of integrity and simplicity of Sien-bi helped the martyrs in overcoming the poverty and hardship of the persecution. Fifth, the idea of fidelity of the women during the Choseon Dynasty influenced the forming of the idea of chastity in the early Catholic Church during the Choseon Dynasty.

* **Key Words:** Confucianism, Sien-bi(a scholar), Religious Martyrdom, Catholicism of Choseon Dynasty